

광주 백운광장 ‘공중보행로’ 설치 앞두고 의견 엇갈려

‘도심 뉴딜’ 상권 활성화...보행 환경·경관 개선 효과 기대
 이용객 수요 불투명...도심 흉물 전략·사생활 침해 우려도

고가도로 철거 작업을 마친 광주 백운광장에 ‘공중 보행로’ 설치를 앞두고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백운광장 일대(21만3000㎡)에 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남구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백운광장에 미디어 파사드(외벽 LED조명 활용 정보 전달 기능 구현)·컨테이너 음식 거리·청년 복합 플랫폼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해 남구는 주월동·양림동 일대 푸른길 공원의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손쉽게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주요 간선도로로 인해 끊긴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지하도나 보행 개

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횡단보도 체계 개선보다는 공중보행로가 최적 대안이라고 잠정 결론내렸다.

공중보행로 설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게 봤다. 시가지 남동측 도심 외곽 중간 지구에 위치, 백운광장 주변 상권의 미래 잠재 성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웬드마크’ 성격을 띤 보행 시설이 상권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검토를 통해 남구는 다음 달부터 총 연장 207m·너비 4~8m 규모의 공중보행로 공사를 발주한다.

남구 관계자는 “노후 상가가 많아 상권 유입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도심재생 사업이다. 인근 공동주택 단지 개발로 6500여 가구가 새롭게 유입하는 데 따른 보

행 편의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주변 상인·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백운동 주민 이모(50)씨는 “주월동·양림동을 오가려면 횡단보도를 2번에 걸쳐 건너야 했다. 공중보행로가 생기면 도보 이동 시간이 꽤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양림동에 사는 양모(23·여)씨는 “공중보행로가 도심 상징물로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주월동 주민 설모(65)씨는 “푸른길을 오가는 대부분이 노년층이다. 경사로 구간은 무릎에 무리를 준다.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불투명하다”며 “육교도 이용객 수요·노후화를 고려해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모 카페 업주는 “보행로가 1층 상점 시야를 가릴 수 있다. 보행로 입구만 붉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34)씨는 “현 계획대로라면 보행로 위에서 집 안이 훤히 들어



광주 백운광장 공중보행로 임시 조감도. 광주 남구는 주월동 백운광장에 길이 207m 넓이 약 4~8m의 공중보행로 구조와 설계를 논의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주 남구청)

다 보일 것 같다”고 걱정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공중보행로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보행 편리성을 고려하면 장점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

보수·관리가 쉽지 않다. 투입 예산 대비 이용객 수요,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봄꽃은 활짝 피었는데...몰려드는 상춘객들 어찌나



지난 7일 산수유꽃 군락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에 마스크를 착용한 봄나들이객들이 가득하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노란 산수유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상춘인파가 연일 몰리면서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산수유꽃 만개 구례 방역 ‘진압’ 주말하루 9000여대 차량 방문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구례군 산수유 군락지에 예년보다 일주일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상춘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수유 군락지마다 삼삼오오 나들이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모습이지만, 한쪽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구례군 방역 요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 우려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구례군은 산수유 꽃길을 따라 5개의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 총 1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방역 요원 사업에 따라 고령군

이 고용한 14명의 전문 방역 요원 중 일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산수유 군락지에서 일한다.

관광객들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독려,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때때로 마스크가 내려와 턱스크가 된 관광객들의 경우 언쟁이 오가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지만 가능한 한 불쾌감이 전달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야외에 몰린 인파가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정점의 ‘산수유 문화관’으로 이어지는데, 실내인 이곳은 야외와 다른 긴장감이 흐른다. 입장을 위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 방명록 작성 시간 긴 줄이 생기면서 방역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구례 산수유꽃 관광객은 지난해 이맘때 토요일 기준 4719대의 차량이 진입했으나 올해는 7035대가 진입해 49%가 늘었다. 올해도 평일 하루 3000~4000대, 주말 9000대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지에서 방문한 조 모(43)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주 일요일 구례 산동면 방면으로 산수유꽃 구경을 다녀왔으나, 거리 두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라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구례군 방역 당국은 “활짝 핀 산수유꽃과 맑은 봄날을 맞아 모여드는 상춘 인파를 강제로 못갓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면서 “관광객 개인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혹시 모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체온 측정,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산동면과 지리산 등으로 향하는 국도에는 곳곳에 ‘방문자제’, ‘이동 금지’를 당부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코로나19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주말 차량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